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한  
“느헤미야 52일 기도와 금식 (5/10-6/30)”

## Let's Rebuild Together

“성벽 공사는 오십이 일 (52일) 만인 엘룰월 이십오일에 끝났다.”

So the wall was finished on the twenty-fifth day of the month Elul, in fifty-two days.

「느헤미야 6장 15절」

이 기도 가이드는 느헤미야서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의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말씀을 붙잡고 포스트 코로나19의 교회 (특히 연합감리교회와 캔사스한인중앙연합감리교회)와 가정, 그리고 다음 세대를 재건축하기 위한 느헤미야 52일 기도와 금식 기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기도문은 매주 주일에 배포가 될 예정이며 이 기도문은 6일 단위가 한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섹션은 도입과 생각해 볼만한 질문, 그리고 날마다 핵심 구절 및 짧은 기도문이 적혀 있습니다. 개개인별로 그 말씀 구절과 기도문을 바탕으로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Section 9 | DAYS 50-52 [6/28 월요일 - 6/30 수요일]

죽음과 부활 Death and Resurrection

### 도입 Introduction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의 중심에는 예수님 자신의 삶의 사건을 비추주는 죽음과 부활의 경험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말에 나치에 의해 살해된 독일 기독교 순교자 디트리히 본회퍼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시면 그에게 와서 죽으라'고 썼습니다. 그러한 죽음은 결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살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히 새로운 부활의 삶을 향해 창문이 열린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후반부에서는 그가 하나님과 신실하게 재결합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워진 신앙생활에 참여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초막절과 안식일 준수의 재도입이 포함됩니다. 안식일 준수는 익숙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유급이든 무급이든 모든 일에서 일주일에 하루를 쉬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임재를 기뻐할 시간을 주는 하나님 창조의 중심에 있는 중요한 리듬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애굽 탈출,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공급을 축하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종종 신앙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한 조상들의 신뢰를 기억하는데 도움이 된 간단한 재료로 만든 초막이나 쉼터를 짓는 것으로 상징되었습니다. 52일간의 기도와 금식을 마친 느헤미야와 함께 우리는 우리의 삶들을 예수의 제자들로 정의하는 부활절 중심 사건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옛살이 기꺼이 죽음이고, 하나님의 안식과 평화의 즐거움이고, 그리고 그 모든 충만함 속에서 새로운 삶을 발견하는 기쁨입니다.

The later chapters of Nehemiah show him involved in the renewed devotional life of the people of Israel, as they faithfully reconnect with God. It includes the reintroduction of the Festival of Tabernacles and Sabbath keeping. Sabbath keeping will be familiar. It remains a vital rhythm at the heart of God's creation, in which we rest one day a week from all work, whether paid or unpaid, and allow ourselves time to delight in God and his presence in our lives. At the heart of life as a disciple of Jesus Christ is the experience of dying and rising that mirrors the events of Jesus' own life. The German Christian martyr Dietrich Bonhoeffer, killed by the Nazis at the end of World War II, had written, 'When Christ calls a man he bids him come and die.' Such a death is not a conclusion, but a window opened on to the whole new resurrection life of God's Kingdom, which we seek to inhabit now. The Festival of Tabernacles began as a celebration of Israel's deliverance and escape from Egypt, and God's provision for them in the desert. It was often symbolised by the building of booths or shelters made from simple materials, which helped believers to remember their ancestors' trust in God whilst in the wilderness. As we conclude our 52 days of prayer and fasting with Nehemiah, let us remember those central Easter events that define our lives as disciples of Jesus, in which there is a willing death to our old lives, the enjoyment of God's rest and peace, and the joy of discovering new life in all its fullness.

### 생각할만한 질문 A question to consider

이 기도의 여정을 되돌아볼 때, 놓아 주거나 죽게 두어야 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기도의 계절의 결과로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교회, 가정에 새로운 것이 생겼습니까? As you reflect back on this prayer journey, are there things which you have had to let go of or to let die; and are there new things which have come to life in you or your corps/church as a result of this season of prayer?

DAY 50 • 6/28 월요일 **구원 기억하기** Remembering Rescue (Nehemiah 8:14-17)

느 Ne 8:17 (새번역)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모든 사람이 초막을 세우고 거기에 머물렀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렇게 축제를 즐긴 일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즐거워하였다.

초막절 (또는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해 주셨던 방식을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되돌아 보면서, 당신 자신의 삶에서 구원과 공급의 순간을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방법들에 대해 생각해보십시오. The Festival of Tabernacles (or Booths) was the moment when the Israelites remembered the way God had rescued them and provided for them in the past. As you reflect on the saving work of Jesus on the cross, think back to moments of rescue and provision in your own life; and reflect on the ways in which God has rescued and provided for us.

DAY 51 • 6/29 화요일 **안식일** Sabbath (Nehemiah 13:15-22)

느 Ne 13:19 (새번역) 나는, 안식일이 되기 전날은, 해거름에 예루살렘 성문에 그림자가 드리우면 성문들을 닫도록 하고, 안식일이 지나기까지 문을 열지 못하게 하였다. 나는 또, 나를 돕는 젊은이들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들이지 못하게 하였다.

섬김에 대한 헌신은 우리를 과도하게 달리게 해서 영적으로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을 내는 대신 우리 자신의 힘으로 달릴 수 있습니다. 안식일 휴식의 중요성을 재발견하도록 기도해주시십시오. Dedication to service can leave us over-stretched and spiritually dry, running on our own strength instead of taking time to be renewed by God's power. Pray that we will rediscover the vital importance of Sabbath rest.

DAY 52 • 6/30 수요일 **주님의 기쁨** The Joy of the Lord (Nehemiah 8:9-10)

느 Ne 8:10 (새번역)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진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 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우리의 여정은 회개에서 시작되었지만 기쁨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것을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직 그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당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이 끝날 때까지 예배와 찬양에 시간을 할애하고, 하나님이 누구 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가올 몇 년 동안 우리 안에서 하실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Our journey began in penitence, but it ends in joy. God has heard our prayers, and through them he has been building something new. We may not see it yet, but in due course we will. As you come to the end of this journey, spend some time in worship and praise, honouring God for who he is, and giving thanks for all that he will do in us over the coming years.